

LG전자

LG전자는 최근 '승리기원 국민형 타임머신 TV 대축제'를 시작했다.

축제 기간 동안 LG전자는 메모리카드를 없애고 160GB 하드디스크를 탑재한 42·50인치 타임머신 PDP TV와 42인치 타임머신 LCD TV 등 '국민형 타임머신 TV' 3종을 한정 판매한다.

이 제품은 메모리카드를 없애 가격을 낮추는 대신, 타임머신 기능은 그대로 있어 TV 작동과 함께 2시간 분량 영상이 자동 녹화되고, 최대 60시간 분량까지 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등 축구 생중계를 시청하는데 적합하다.

가격도 42·50인치 타임머신 PDP TV는 각각 310만원과 440만원, 42인치 LCD TV는 330만원으로 기존 제품보다 30만~50만원가량 저렴하다.

LG전자는 국민형 타임머신 TV 출시와 함께 하이프라자와 전문매장 등 1000여개 대리점에 '빅토리 존'을 설치해 대대적인 판촉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월드컵 수요를 겨냥해 '명품'을 표방한 새로운 LCD TV인 '보르도'를 출시하고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이 제품은 블루·와인 컬러를 제품 하단에 적용해 붉은 포도주가 담긴 와인 잔의 모습을 형상화했고, 40인치 제품 두께가 8.7mm에 불과할 정도로 얇다.

디지털TV 가격 인하도 삼성전자의 마케팅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50인치 PDP TV 가격을 모델에 따라 85만~110만원씩 인하했으며 42인치 PDP TV와 32인치·40인치 LCD TV도 10만~40만원씩 낮춰 판매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또한 컴퓨터와 모니터, 프린터 등 컴퓨터 주변기기 구매 고객을 위한 '삼성컴퓨터 파이팅 페스티벌'을 독일 월드컵이 개막되는 6월 10일까지 개최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팬티엄4 PC인 매직스테이션DM-V50/H300A와 19인치 싱크마스터CX-913T를 169만원, 팬티엄4 슬림PC인 매직스테이션DM-Z48/E302와

# 월드컵은 명품TV로 감상

삼성·LG, 승리기원 각종 이벤트 진행 ... 초저가로 디지털TV 구입 적기

월드컵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대형 TV를 이용하는 게 제격이다. 생동감 넘치는 선수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물론 땀방울까지 표현된다는 점에서 대형TV는 '월드컵 특수'의 최전선에 위치한다. 이 특수를 놓칠세라 업체들은 가격인하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소비자들 마음 사로잡기에 나서고 있다.

글 | 심우성 기자(아이티타임스)





싱크마스터CX-913T를 149만원의 특별가격에 제공한다. FIFA 2006 정품게임CD와 아디다스의 2006 월드컵 공인구인 '팀가이스트'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레이저복합기SCX-4200나 포토프린터SPP-2040 구매 고객에게는 베이직하우스의 붉은 악마 공식 응원티셔츠를 증정한다.

또한 듀얼코어 노트북PC 구매 고객에게 무선 광 마우스를 제공하고, 거실용 엔터테인먼트PC인 '매직스테이션MT-50', 두께9.2cm의 슬림PC '매직스테이션MZ-50', 보급형 슬림PC '매직스테이션MZ-48' 구매 고객에게는 홈 엔터테인먼트 PC용 운영체제인 윈도우즈XP 미디어센터 에디션을 무료로 탑재해주는 사은 행사를 진행한다. 이 밖에도 노트북PC인 센스NT-R45/M160을 119만9000원에, 17인치 LCD모니터 싱크마스터CX-718B를 37만원에 특가 판매한다.

####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일렉트로닉스도 '대한민국 4강 기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중 50인치 PDP TV는 기존 가격보다 80만원 낮춘 379만원에, 42인치 PDP TV와 32인치 LCD TV는 각각 70만원과 50만원씩 인하된 199만원과 139만원에 판매한다.

#### 소니코리아

소니코리아도 최근 국내 LCD TV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월드컵 마케팅에 돌입하는 등 한국시장 내 위상 강화를 위해 전력 투구 중이다. 삼성전자와의 LCD TV 시장 경쟁을 위해 '프리미엄' 전략을 포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소니코리아는 5월부터 '브라비아 S시리즈' TV를 국내에 판매한다. 소니코리아는 S시리즈의 출고가(40인치 기준)를 경쟁제품인 삼성전자 '보르도' TV에 비해 10만원 싼 320만원으로 결정했다.

#### 한국후지필름

월드컵 공식 스폰서인 한국후지필름은 '월드컵 V10 기자단'을 선발하는 마케팅을 진행했다. '월드컵 V10 기자단'은 한국후지필름과 포털 사이트 야후가 진행하는 공동 이벤트로 후지필름은 최종 기자단으로 선발된 20명에게 최신 디카 파인픽스 V10을 대여해줬다.

한국후지필름 측은 "이번 월드컵 기자단 활동을 통해 다시 한 번 2002 한일 월드컵의 감동을 기리고, 2006 독일월드컵에서도 한국 국가대표팀의 좋은 성과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한국HP

한국HP는 환경재단과 함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06 월드컵 개최국 독일에서 환경을 주제로 취재할 'HP대학생 독일친환경 리porter'를 모집했다.

'HP독일친환경 리porter'는 월드컵 한국 예선전이 펼쳐지는 기간 중 독일을 방문하게 되며 항공권·숙박권 등의 취재활동비가 지원된다.



#### 삼보컴퓨터

삼보컴퓨터는 5월 31일까지 월드컵 4강 기원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홈PC 및 노트북 구매 고객에게 각종 사은품을 증정한다.☑